

계명 등 지방대 일부, 등록금 5% 안팎 인상... 동결기조 '흔들'

광주 조선대, 15년만에 인상 추진
부산 경성대, 1학기 평균 5.64% ↑
“서울권 등에 인상 기조 확대할 듯”

일부 지방 사립대가 2024학년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십수 년 이어진 ‘동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등록금 법정 한도가 높아져 등록금 인상 시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도 인상 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15년여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내년에는 수도권 및 서울권 대학까지 등록금 인상 분위기가 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광주 조선대가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했다. 조선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선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1 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분 중 국가장학금 1/1 유형 규모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인상분



서울대·경북대·충남대·부산대 등 국립대학들이 2024학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는데 반해, 일부 지방 사립대에서는 2024학년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는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유토이미지

63.5%는 국가장학금 대체금으로 쓰이게 된다. 나머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경성대도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오는 1학기 등록금을 평균 5.64% 인상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이 밖에도 대구 계명대 4.9%, 원주 경동대 3.7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

들 대학도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 국가장학금을 대신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사립대는 지난 2009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등록금 동결을 시작하며

2016년부터는 일부에서 적자 상황까지 직면했다.

그럼에도 그간 대학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1/1 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정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올해 크게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법정 인상 한도가 지난해 (4.05%)보다 1.59%p 오른 5.64%로 정해졌다. 이는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가 시작된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라 등록금 인상 가능 상한선이 크게 높아지면 등록금을 올려 얻을 수 있는 수입 규모가 커진다.

오는 새 학기 등록금을 확정하는 등심위를 아직 마치지 않은 대학에서 추가로 ‘인상’을 결정하는 대학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내

년에는 이 기세가 서울 및 수도권 대학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올해 일부 지방대가 인상을 이어가며 인상 기조가 형성되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 지나고 나면 사실상 인상 목소리는 대학가 안팎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5학년도에는 수도권이나 서울권에서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등록금 자율화’ 여론에 힘을 실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등록금인상률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1/1 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률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올림픽대로 위 문화시설... 한강 잇는 ‘뿔개공원’ 생긴다

반포본동~반포한강공원 구간
주거지에서 한강까지 직접연결
혁신적인 설계위해 국제 공모

오는 2027년 올림픽대로 상부에 주거지와 한강을 잇는 뿔개공원이 생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부지에 총 1136억2200만원을 들여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국제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오는 13일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 뒤 심사를 거쳐 올 6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신반포로와 반포한강지구를 잇는 뿔개공원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공기여(기부채납)로 마련된다. 총 1만㎡



뿔개공원 조감도 예시. /서울시

규모 부지에 뿔개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이 만들어진다.

시는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과 육교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뿔개공원을 설치,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원에는 근현대아파트 주거상과 역

사를 보여주는 전시장과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며,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조성된다.

시는 국내·외 설계 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달 1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공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한국어·영어 동시통역과 함께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에 처음 만들어지는 뿔개공원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통해 한강을 시민의 삶 더 가까이 끌어들이 올 수 있게 됐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 신규공무원 2594명 채용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30명 ▲7급 25명 ▲9급 146명 등 19개 직류 201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72명, 저소득층 88명, 기술계고 43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많아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7급 이상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8·9급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류를 제외해 자격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9급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지적기능사 추가 ▲일부 시군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적용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취약계층 식사 지원... 대중교통 막차 연장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4257명 정기전보

서울시, 8~13일 ‘설 종합대책’ 시행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2024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취약계층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무료 급식과 도시락을 챙기고,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성수품 거래 물량을 늘린다.

우선 시는 단체급식소와 일반음식점(짜짜카드 가맹점)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 2만784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지역 내 급식소나 문을 연 음식점이 없을 경우 가공조리식품을 전달한다.

노숙인 시설 35곳은 하루 세끼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특식비(1식 4000원)를 지원하고 도시락

과 밀반찬을 추가로 배달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는 위문비로 3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 배, 양파, 조기, 명태 등 9개 주요 성수품을 최근 3년 평균 거래 물량 대비 105% 수준으로 공급한다. 출하장려금·출하손실보전금 등의 특별 지원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귀성·귀경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명절 당일과 다음 날(2월 10~11일)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지하철은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마지막 열차가 익일 오전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총 236회 증회 운행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올 신설 공립유치원 희망자 우대
보직교사 2년 채우면 전보 유예도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 인사발령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230명과 공립 초등학교 교사 4027명 등 총 4257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4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해 배치했다. 전보 원칙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하고, 관내 전보 시 거주지, 도로망, 경력, 근무 유치원 등도 고려했다.

초등학교 교사 전보에서는 교사의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비전산 전보 가능 비율을 전년과 같은 10%로 유지했고, 관내 전보는 거주지와 도로망, 근무학교 등을 고려해 전산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했으며, 보직교사 경력 24개월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보유예 10항을 신설했다. 또한, 일반학교 현임교초빙을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서 전 교원이 참여하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